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음 4월 11일) 제20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6·13 지선 후보자 등록 첫 날

본선 막 올랐다

송하진·임정엽·권태홍·이광석 도지사 후보 등록 마쳐
김승수·이현웅 전주시장 후보, 김승환 등 교육감 후보
익산·김제 등 도내 다른 시군 단체장 후보들도 등록

전북도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면서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등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와 시·군 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등록을 하고 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로 활동해왔던 민주평화당 임정엽, 정의당 권태홍, 민주당 이광석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예비후보 등록 대신 도정에 매진했던 민주당 송하진 현 지사도 이날 후보로 등록했다. 또 전주시장 후보인 민주당 김승수,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고, 김승환 현 교육감과 이미영 후보 등 교육감 후보들과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 박준배 김제시

장 후보와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 등 도내 다른 시군 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대거 등록했다. 이처럼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의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 6회 지방선거의 패배를 설욕하고 압승을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7곳을 무소속에게 내줬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0일부터 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차량 유세나 선거공보를 발송, 선거벽보 부착 등이 가능해진다. /김진성 기자

'이것이 120년 묵은 천종산삼이로구나!'

남원 운봉 지리산에서 발견
감정가 3억 호사가 '관심사'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지역에서 120년이 넘는 천종산삼이 발견돼 화제다. 해당 산삼은 감정가가 3억원에 달해 호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종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산삼을 말한다. 약초꾼 김대곤(64)씨는 지난 21일 산을 둘러보던 중 절벽 아래에서 산삼 3뿌리를 발견했다. 해당 산삼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어미산삼(모삼)은 120년 이상 된 천종산삼으로 확인됐다. 뿌리 길이는 72cm, 뿌리 무게는 75g이었다. 나머지 2뿌리는 모삼의 씨가 발아한 자삼(어린산삼)으로 수령이 각각 50년, 25년이었다. /뉴스시스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군산서 팡파르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 방문객들에게 호응 얻어 박람회는 내일까지 진행

이상화 선수 토크콘서트 강상태 강사 멘토 특강 동아리경진대회 등 볼거리·행사 다채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이하 박람회)'가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전북도지사 김한태행 김승일 행정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청소년 및 지도자,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는 행사의 기획에서부터 연출까지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 공모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해, 청소년만의 재치와 에너지가 가득한 진행으로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방문객들에게 청소년들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문동신 시장은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거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이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의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메카가 되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지며 미래존, 진로존, 행복존, 청의존, 안전존 등의 총 5개 주제관에서 170여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행사 주요프로그램으로는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의 청소년 토크콘서트, 공부의 신 강상태 강사와 주한 호주대사 제임스 최가 진행하는 멘토 특강, 청소년뮤지컬, 동아리경진대회, 청소년어울림마당, 도전골든벨, 고등래퍼를 비롯한 야외무대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가 준비돼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속보〉- 北, 풍계리 2~4경도·생활동 건물 등 폭파 완료

26일 소년체전... 전북, 34개 종목 선수 800명 출전

전북도교육청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충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4개 종목 800명의 선수와 480명의 임원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꿈나무들의 스포츠 제전인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생명중심 충북에서 세계중심 한국으로'라는 대회 구호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1만 7천여 명이 충주종합운동장 등 46개 경기장에서 초등부 21개 종목과 중등부 36개 종목으로 나뉘어 열린 메달 경쟁을 펼친다. 전북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8개를 포함 80개의 메달획득이 목표다.

기록종목의 양궁, 육상 체급종목의 역도, 유도, 태권도, 단체종목의 핸드볼(이리중), 배구(남성중), 야구(군산남초)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에 이어 역도에서 다관왕 배출과 이리중의 핸드볼이 소년체전 2연패의 패권을 가져올지도 관련 포인트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1월 1차 선발을 하여 동계 강화훈련과 올해 3월 최종 선발을 통해 8여 명의 대표선수 훈련비를 지원했으며, 다메달 종목 수 전략종목 특별훈련을 통해 훈련비 지원 및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기동취재반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